

## ■ 잦은 문화예술계 인사 잡음과 갈등으로 진통

문화 분야에서는 주요 문화예술계 산하기관 인사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반발 등으로 인한 잡음도 계속됐다.

김희범 문체부 제1차관이 2015년 1월 말 돌연 사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해 국립오페라단장과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인선 과정에서 문화예술계로부터의 문제 제기가 잇달았다. 정식 공모에서 적임자를 뽑지 못한 채 장기간 공석이었던 국립현대미술관장 자리에는 처음으로 외국인 관장이 임명된데 따른 논란도 있었다.

# 대중매체

## 신문

### ■ 메르스 사태, ‘기레기’ 오명은 여전

2015년 5월 말부터 한국사회를 강타한 메르스 사태는 재난 보도에 있어 우리 언론의 갈 길이 멀다는 것을 극명히 보여줬다. 언론은 메르스 발병 초기 ‘확산 우려가 없다’는 정부 발표를 곧이곧대로 전했을 뿐 아니라 정부의 병원 비공개 방침을 그대로 따랐다.

이 때문에 첫 번째 감염자가 최초로 찾았던 삼성서울병원은 사태 초기에 실명이 공개되지 않아 더 많은 피해를 키웠다. 이후 감염자와 병원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는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대립을 부각시키면서 정치쟁점화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언론이 정부의 발표를 추가 취재하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공포심을 조장하고 정치 대립을 격화시켰다는 것이다.

이밖에 살아 있는 환자를 사망했다고 보도하는 등 오보도 잇따라 세월호 참사 이후 피해자 인권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재난보도준칙’을 제정한 것이 무색했다.

### ■ 일본 산케이 서울지부 ‘무죄’와 청와대의 국민일보 광고 보복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의혹을 보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전 서울지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15년 12월 17일 해당 기사에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일본 산케이 신문은 세월호가 침몰한 2014년 4월 16일 박 대통령이 7시간에 걸쳐 ‘소재불명’이 됐다는 ‘팩트’가 튀어나왔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모 신문의 칼럼을 인용해 관련 내용을 8월 3일 기사로 다뤘다.

산케이신문은 당시 보도를 통해 2014년 7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위치에 대해서는 내가 알지 못한다”는 답변을 했으며, 이에 관해 현 정부 비선 실세로 향간에 회자돼온 정윤희 씨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의

‘남녀관계 의혹’이 있다고 시사했다.

이에 청와대는 가토 다쓰야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을 고소했고, 검찰이 온라인 명예훼손 혐의로 가토 전 지국장을 기소하자 국내의 언론 및 시민 단체 등은 표현의 자유 침해가 우려된다며 비판했다.



▲ 12월 17일 프레스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 이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국민일보는 2015년 6월 16일 메르스 사태 때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했던 서울대병원 격리병동에 부착돼 있던 ‘살려야 한다’ 문구 관련 비판 기사를 썼다가 정부광고 게재 누락 등 불이익을 받았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국민일보가 「‘살려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뒤편에 A4용지… 폐복지기 초이스」 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것을 두고 “이게 기사가 되느냐”라고 해 논란이 일었다. 국민일보는 이후 정부의 메르스 광고 집행 매체에서도 빠졌다.

전국언론노조 국민일보지부에 따르면 홍보수석이 국민일보 편집국장 등에 전화로 항의한 이후 6월 18일 언론진흥재단이 광고주인 정부의 입장 때문이라며 19일 조간신문에 게재하기로 한 정부 광고를 돌연 “취소하겠다”고 알려졌다.

국민일보 측이 급작스러운 광고 취소 경위에 대해 알아본 결과, 광고 집행 기관인 문체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아무 힘도 없다”고 했고 김성우 홍보수석은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 ■ 현직 언론인 4천713명,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현직 언론인 4천713명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2015년 11월 4일 발표한 시국선언문에서 언론인들은 “역사 역행과 민주주의 퇴행에 맞서 불복종을 선언한다”며 “국민의 희생과 피담으로 일궈온 민주주의 저항의 역사를 반드시 지켜내고 기록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인들은 “역사를 입맛대로 기록하려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정권에 일방적인 줄서기를 강요하는 언론장악, 노동자의 생존권을 송두리째 빼앗는 노동개악,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의 뿌리는 동일하다”며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는 독선과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오만함이 그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시국선언문은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 경남신문, 경남도민일보, 미디어오늘, 시사인과 오마이뉴스, 미디어스에 광고로 게재됐다.

시국선언에는 KBS와 MBC, SBS, EBS 등 방송사와 경향신문, 한겨레, 국민일보, 한국일보 등 신문사, 연합뉴스, 뉴시스 등 통신사와 함께 돌베개 등 출판사 소속 언론인들도 참여했다.

## ■ 2014년 신문 매출 전년보다 감소

2014년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 매출액을 합산한 신문 산업 전체 매출액은 3조4천979억원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간한 '2015 신문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간신문 매출액은 2조7천2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77.2%를 차지했다.

일간신문 중 가장 큰 매출액을 기록한 사업체는 전국종합일간지로, 매출액은 1조4천154억원(40.5%)이었다. 다음으로는 경제일간 6천661억원(19.0%), 지역종합일간 4천200억원(12.0%) 등 순이었다.

언론재단은 2013년에 비해 2014년 매체 수가 늘었음에도 매출액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90% 가까이 차지하는 종이신문 매출액 감소가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2014년도 신문산업 종사자는 일간신문 1만5천470명, 주간신문 8천53명, 인터넷신문 1만3천450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기자직 종사자는 일간신문 9천533명, 주간신문 5천659명, 인터넷신문 9천363명 등이었다.

## ■ 2014년 일간지 발행 부수 조선일보가 1위

2015년 11월 27일 ABC협회가 공개한 '2014년 부수인증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종합일간지 유료부수는 조선일보가 129만4천931부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앙일보(79만5천209부), 동아일보(73만7천53부), 한겨레(19만8천931부), 경향신문(16만9천58부), 문화일보(14만9천401부), 국민일보(14만1천648부), 한국일보(14만1천375부), 서울신문(10만7천937부), 세계일보(6만3천265부) 등이 뒤를 이었다.

2014년 일간지 총 발행부수와 유료부수는 각각 990만8천938부와 712만4천619부로 집계됐다. 지난 5년 동안 발행부수는 22.5%, 유료부수는 9.7% 가량 떨어졌다.

ABC협회는 구독료를 내고 보는 유료부수에 비해 발행부수 감소폭이 큰 이유에 대해 그동안 과열경쟁 탓에 '부수확장 정책'을 고수했던 신문사들이 종이값 등 경비절감 차원에서 발행부수를 줄여나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방송

## ■ 개요

2015년 TV 드라마에서는 연말에 방송된 '응답하라 1988'이 새로운 신화를 쓰며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드라마와 예능의 경계를 허무는 다양한 실험작들이 선보였다. 막장 드라마는 여전히

히 활개를 쳤고, 중국을 겨냥한 웹드라마가 우후죽순 마냥 쏟아져 나왔다.

TV 예능에서는 '육방' 열풍이 거세게 불었고, 인터넷용 콘텐츠가 하나둘 만들어지면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방송가의 노력을 보여줬다. 방송가 전반적으로는 케이블의 약진으로 지상파 프리미엄의 붕괴가 가속화됐고, 이에 '방송'이라는 말이 필요 없는 디지털 콘텐츠의 개발에 박차가 가해졌다.

연예계에서는 '온사마' 배용준이 장가를 가고, '대장금' 이영애가 11년 만에 연기를 재개한다는 소식이 전 세계 한류 팬들이 들썩였다.

## ■ '응답하라 1988' '삼시세끼' 신드롬...지상파 부럽지 않은 케이블

2015년의 막바지인 11월부터 방송된 M '응답하라 1988'이 대박을 치면서 드라마를 넘어 방송가의 역사를 새롭게 썼다.

11월 6일 6.7%(이하 닐슨코리아 유료플랫폼)에서 시작해 12월 26일 16화에서 16%를 기록하는 등 내내 시청률 상승곡선을 그린 이 드라마는 결국 해를 넘겨 1월 16일 마지막 20화에서 평균 시청률 19.6%, 순간 최고 시청률 21.6%를 기록하며 대성공을 거뒀다.

그전까지 역대 케이블 프로그램 최고 시청률은 2010년 10월 22일 방송된 '슈퍼스타K2' 마지막 회의 평균 18.1%, 순간 최고 21.2%로, 6년 만에 케이블 역사를 다시 쓴 것이다.

1화부터 폭발적인 사랑을 받으며 후반부에는 인터넷이 터져 나갈 정도로 열띤 반응을 끌어낸 '응답하라 1988'의 이 같은 성과는 국내 케이블 역사 20년의 빛나는 금자탑이다. 지상파 평일 밤 드라마의 시청률이 2%대(KBS '무림학교')까지 추락한 상황에서 이 같은 성적은 지상파 프리미엄의 붕괴를 가속시켰다.

여기에 M 예능 '삼시세끼 - 어촌편' 역시 지상파를 무색하게 하는 케이블의 약진을 견인했다. 여느 주부 못지않은 요리 솜씨로 남녀노소를 휘어잡은 배우 차승원의 현란한 요리 쇼는 1~3월과 10~12월 두 차례에 걸쳐 방송되며 '차츰마' 신드롬과 함께 큰 인기를 얻었다. 최고 시청률은 시즌1 5회의 평균 14.2%, 순간 최고 16.3%를 기록했다.

이 두 프로그램의 인기는 광고 시장에 즉각 반영돼, 두 프로그램의 중간 광고 단가는 지상파 인기 프로그램의 광고보다 1천만원 가량이나 비싸게 팔려나갔다.

## ■ '킬미힐미' '그녀는 예뻐다' '용팔이' '내 딸 금사월' 등 인기

지상파의 시청률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SBS TV '용팔이'가 미니시리즈 드라마로서는 오랜만에 시청률 20%를 넘으며 집나간 시청률의 귀환을 알렸다. 최고 시청률 21.5%로, SBS TV '별에서 온 그대' 이후 1년 반 동안 계속된 시청률 가뭄을 해소했다.

지성에게 2015 MBC 연기대상을 안긴 '킬미힐미'와 황정음의 사랑스러운 못난이 연기가 화제였던 MBC TV '그녀는 예뻐다', '별에서 온 그대'의 김수현과 박지은 작가가 다시 손잡고

KBS 예능극서 제작한 '프로듀사'는 시청률을 떠나 큰 인기를 모았다. 특히 지성과 황정음은 신들린 연기를 펼쳤다는 극찬을 받았다.



▲ 배우 황정음이 11월 1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기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SBS TV '편지'와 '공문으로 들었소', '마음- 아치아라의 비밀', '애인있어요' 등은 웰메이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반향을 낳았고, MBC TV '앵그리맘'과 SBS TV '미세스캡', tN '오 나의 귀신님'도 드라마 소재의 폭을 넓혔다는 평가 속에 좋은 반응을 얻었다.

막장 드라마의 행진도 아침저녁으로 계속됐다. '막장 작가'의 대명사인 임성한 작가가 MBC TV 일일극 '입구정 백야'를 끝으로 5월 전격 은퇴를 선언했지만, MBC TV '화려한 유혹', '내 딸, 금사월' 등은 높은 시청률로 인기를 모았다.

## ■ 셰프 전성시대...먹방-국방 세대교체

정초 '삼시세끼 - 어촌편'에서 차승원이 숨어있던 요리 고수의 정체를 드러낸 이후 2015년 한해는 국방이 TV를 점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모델 출신 섹시한 스타 배우 차승원이 막히거나 주저할 없이 만들어내는 갖가지 한식 반찬과 해산물 요리는 내공 100단의 주부도 현혹시킬 만큼 맛깔스럽고 화려했다.

차승원을 시작으로 요리하는 남자의 모습을 내세운 예능 프로그램들이 줄줄이 만들어졌고 덩달아 입담을 겸비한 남자 셰프들이 TV를 주름잡았다.

JTBC '냉장고를 부탁해', SBS '백종원의 3대 천왕', tN '집밥 백선생', 올림 '신동엽, 성시경은 오늘 뭐 먹지?', '한식대첩' 등이 히트를 쳤고, 온갖 아류작들이 끊임없이 제작됐다.

요리연구가 백종원을 비롯해 최현석, 샘 김, 오세득, 이연복 등 신선한 얼굴들이 속속 등장했고, 맛집을 찾아 식도락을 즐기는 모습을 담은 '먹방'은 음식을 직접 만드는 '국방'으로 진화했다. 이중 MBC TV '마이 리틀 텔레비전'은 백종원을 내세운 국방으로 화제를 끈 동시에 TV와 인터넷을 결합한 상품으로 히트를 쳤다.

또 tN의 스타 나영석 PD는 과거 KBS에서 '박2일'을 함께 했던 강호동, 이승기, 은지원, 이수근을 불러 제작한 '신서유기'를 TV가 아닌 인터넷으로 공개해 인기를 얻었다. 8월 네이버

TV캐스트를 통해 첫 공개된 '신서유기'는 총 23부로 구성돼 12월 현재 5천300만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며 인터넷 콘텐츠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 ■ 배용준 결혼·정형돈 불안장애 등 연예가 다사다난

한류스타 송승헌(39)과 중국 청춘스타 류이페이(劉亦菲·유역비·28), 한류스타 추자현(36)과 중국 가수 겸 배우 위샤오광(于曉光·34)의 열애 소식은 한국과 중국을 하나로 만들었다.

또 '윤사마' 배용준의 결혼은 일본 열도에서 큰 화제를 모았고 그의 결혼식을 보기 위해 많은 일본 팬들이 현해탄을 건너왔다.

'대장금' 이영애의 11년 만의 복귀작인 SBS TV 드라마 '사임당, 더 히스토리'는 홍콩 그룹으로부터 100억원을 투자받았고, 아시아 6개국에 미리 판매되며 한류의 힘을 보여줬다. 이 드라마에는 송승헌도 출연한다. 그런가하면 방송인 정형돈은 11월 평소 가지고 있던 불안장애가 심각해졌으며 모든 방송활동을 전격 중단했다.

장근석은 방송을 앞두고 탈세의혹이 불거지면서 '삼시세끼 어촌편 1'에서 촬영분이 통째로 편집되는 굴욕을 맛봐야 했고, 배우 이태임과 가수 예원은 방송 프로그램 녹화 중 불은 말싸움 영상이 공개되면서 곤욕을 치러야 했다.

# 뉴미디어

## ■ SKT, CJ헬로비전 인수·합병...방송·통신 융합

SK텔레콤이 2015년 11월 2일 이사회를 열어 케이블TV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기로 의결했다.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지분 인수와 함께 인터넷TV(IPTV)와 유선인터넷망 사업 등을 하는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을 추진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합병 법인의 주력 사업을 미디어로 전환하고, 케이블TV와 IPTV의 하이브리드 사업모델을 기반으로 홈 고객에 기반을 둔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제공해 최고의 '차세대 미디어 플랫폼 회사'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두 회사가 인수·합병하면 유료방송 시장에 격랑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IPTV 분야 시장점유율 2위인 SK브로드밴드와 케이블TV 업계 1위인 CJ헬로비전은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750만 명으로 늘리며 업계 1위 KT를 바짝 뒤쫓는 동시에 업계 3위인 LG유플러스(가입자 220만 명)를 멀찌감치 따돌리게 된다.

KT의 경우 IPTV인 올레tv 가입자 615만 명, 위성방송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 200만 명 등 약 815만 명의 유료방송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 등은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합병해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공룡 사업자'로 재탄생할 경우 시장 지배력이 급속히 커져 시장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며 합병에 반대하고 있다.